

##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 『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이 재 봉\*\*

### 차 례

- |                                   |                                   |
|-----------------------------------|-----------------------------------|
| I. 작가와 언어                         | IV. 이중 언어의 긴장된 투쟁관계,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
| II. 국어(일본어)와 식민지 시기 작가들의 이중 언어 논리 | V. 마무리                            |
| III. 모어와 모국어, 갈등과 긴장의 논리          |                                   |

## I. 작가와 언어

작가에게 언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문학과 언어의 관계를 중시하는 형식주의적 명제를 새삼스레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체로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작가와 언어와의 관계가 과연 그만큼 자명한 것인가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문학 연구에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작가와 언어의 관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가는 자기 앞에 주어진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즉 한국의 작가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일본 작가는 일본어를 선택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작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특정한 작가의 문학 활동은 특정한 ‘국가’와 그 국가 언어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대적 관념의 소산이다. 따라서 작가와 언어를 문제 삼는 경우에도 그 언어적 운용의 특수성이나 수사학적 특징만이 관심 영역으로 흡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근대의 문학적 상황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작가의 언어 역시 근대의 다양한 국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와 민족, 식민과 피식민, 주체와 타자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들이 혼종되어 있는 것이 근대의 언어적 상황이다. 그렇다면 작가와 언어의 관계 역시 자명한 것이 아니다. 작가와 언어의 이런 특징은 오늘날 탈식민주의라는 반성적 흐름과 함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근대의 ‘에크리튀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오늘날의 흐름은 의미심장하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특히 일본어와의 관계가 문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식민지 말기 이중 언어 문학이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내셔널리즘적 흐름 아래 단일 언어의 논리를 앞세웠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식민지 시기 작가들이 처하고 있었던 이중 언어 상황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탈식민주의적 흐름과 함께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1) 이와 같은 연구 중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 문화사, 2000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3 ; 황호덕, 『동아시아 근대 어문 질서의 형성과 재편 ; 국어(國語)와 조선어(朝鮮語) 사이, 내선어(內鮮語)의 존재론-일제말의 언어정치학, 현영섭과 김사랑

그렇지만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작가들의 이중 언어와 그 글쓰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이후 형성된 재일 한인 문학과 그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와, 여기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한국어(조선어)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재일 한인 작가들이 한국어(조선어)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어떤 논리로 일본어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이다. 지금까지 재일 한인 문학 연구는 그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중 언어 상황과 그 논리를 따지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차적 자료 연구나 주제 연구의 중요성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재일 한인 문학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재일 한인들이 발간했던 『漢陽』, 『三千里』, 『靑丘』 등의 잡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중 언어적 상황과 그 논리를 따져 보고자 한다.<sup>2)</sup> 이들 잡지가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걸쳐 있기도 하려니와 많은 작가들과 연구자(일본인 포함)들이 재일 한인 작가의 이중 언어에 대한 자료를 상당 정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

## II. 국어(일본어)와 식민지 시기 작가들의 이중 언어 논리

식민지 시기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는 단순한 의사소

---

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7 등이 특히 주목된다.

- 2) 이 짧은 글에서 재일 한인 작가들의 이중 언어 상황을 모두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어와 한국어(조선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단행본이나 소설 작품 등 구체적인 문헌으로 남겨놓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김달수, 김석범, 김시중, 고사명, 오임준, 이회성,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재일 한인들이 발간한 주요한 잡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연구는 기회를 달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통 수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근대의 국민국가 기획이 만들어 낸 일국 일어 체제는 순혈주의와 결합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이 상황은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메이지 시대 동경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로 형성되면서 여타의 언어를 억압하고 배제했던 근대적 언어관<sup>3)</sup>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 일본어의 폭력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1923년의 관동대진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バビブベボ*”<sup>4)</sup> 등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 탁음

- 3)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지역의 언어를 통제하고 탄압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Bill Ashcroft 등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억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언어에 대한 통제이다. 제국주의의 교육 시스템은 식민지 본국의 표준어를 규범으로 삼는 반면 나머지 <변종>들은 모두 비제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21쪽. 근대 이후 일본의 ‘국어’와 식민지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연숙, 고영진 · 임경화 역,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및 고모리 요이치, 정선태 역, 『일본어의 근대-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소명출판, 2003. 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 4)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조선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バビブベボ*”를 발음시켜 보고는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한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一日 이후, 수많은 被害者들이 가족을 찾아서, 또는 피난하기 위해서 郊外로 나갔다. 그 중에는 조선인 被害者도 많았다. 조선인은 대체로 B의 發音이 서툴다. 自警團은 通行人을 붙잡고, “*バビブベボ*를 말해 보라”고 強制. 發音이 틀리면 죽여버렸다. 日本人도 상당히 죽었을 것이다.” (『放射鏡』, 『漢陽』 20, 1963. 10. 77쪽.)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의 표준어가 절대적인 지표가 되어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하는 것을 고모리 요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때 ‘조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준어’로서의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렇게 해서 학살된 ‘조선인’ 수는 6천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경찰’화함으로써 ‘국가권력’과 합체하고자 한 ‘민중’이 ‘표준어’로서의 ‘일본어’를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고 ‘우리’와 ‘그들’을 준별하는 지표로 사용했다는 것은 ‘표준어의 제패’를 둘러싼 피로 묻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고모리 요이치, 앞의 책, 290~291쪽.

은 조선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직접적인 근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김석범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고야(관동대진재 당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고야로 도피했음-인용자)에서 살기 시작하고부터 D의 아버지의 처세관은 근본에서부터, 결국 관동대진재의 충격을 계기로 일변했다.

<일본인보다도 능숙하게 일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그의 아버지 생애를 지배한 철칙이 되어 철저하게 일본인처럼 행동했다.

당시 조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서는 「十円五十錢」을 발음시킨다는 것은 나도 소년 시절, 어머니 등으로부터 자주 들었을 정도로 그것은 원한품은 금액이었지만, 그 「十円五十錢」을 잘 발음하지 못하기만 하면 곧 조선이라는 이유로 그 장소에서 죽었다는 것도, 말하자면 서툰 일본어 탓이라는 것이었다.<sup>5)</sup>

위의 인용은 이 시기 일본어가 식민지적 근대의 폭력을 직접적인 형태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보다도 능숙하게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처세관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셈이다.<sup>6)</sup>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기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는 식민지 피지배 계층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하던 가장 일차적인 매개였다고 할 수 있다.

5) 김석범, 「一在日朝鮮人の獨白」, 『ことばの呪縛-在日朝鮮人文學と日本語』, 筑摩書房, 1972, 13~14쪽. 『漢陽』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있다. “얼마 전 일이다. 목은 신문과 잡지를 뒤지던 나는 日人 筆者가 쓴 「十五円 五十錢의 悲劇」이라고 표제를 단 자그마한 기사에 시선을 멈췄다. 글 내용은 關東大震災(일명 東京大震災라고도 한다)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十五円 五十錢이라고 말해 보라!」 돌연 이런 말을 듣고 즉각 이것을 만족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즉 十五円 五十錢이란 말을 日本 사람들과 같이 濁音字대로 發音하지 못하고 「チユウ コエン コチツセン」이라고 한 在日韓人들의 목은 시퍼런 칼날에 무참히 날아났다는 것이다.” 李德成, 「十五円 五十錢의 悲劇」, 『漢陽』 제6권 제4호, 1967. 4. 180쪽.

6) 이 외에도 김석범은 훗카이도 탄광에서 땀감처럼 불 속에 던져졌던 조선인 청년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 김석범, 같은 책, 9~10쪽.

이를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활약하던 작가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제일 한인 문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 언어 문학의 중요한 작품들은 대개 식민지 말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다. 물론 1920~1930년대에 도 일본에서 조선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작가와 작품은 식민지 말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물론 식민지 말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어’가 폐지되고 ‘국어(일본어)’ 상용이 강요되던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 들어 일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식민지 문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1940년대에 이르러 일본 문단에서는 식민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과 만주 등의 문학이 재발견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이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제일 한인 작가들에게 ‘국어(일본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언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어는 끊임 없이 일본어에 간섭하며 작가들의 자의식을 자극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선택한 작가들이 자신의 일본어 선택논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한 이들로써 정연규, 김희명, 김용제 등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작가는 장혁주와 김사량이다. 이들은 제일 한인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어를 이용해서 식민지 피지배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 활동은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장혁주는 ‘조선어는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될 기회가 많은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8)</sup> 당시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실상을 폭넓게 호소하기 위하여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사량은 「無窮一家」는 「內地(日本)에 있는 조선이주민의 고난

7) 이에 대해서는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濤), 「植民地文學から在日文學へ-在日朝鮮人文學論序説(1)」, 『靑丘』 22, 1995. 夏, 151~156쪽 참조.

8)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濤), 앞의 글, 152쪽.

의 생활을 동포에게 전달한다는 기분에서 묘사한 것, ‘빛 속으로’도 동경에 살고 있는 조선인 일가(다만 남편은 조선·일본 혼혈인, 처는 조선인)의 어두운 생활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향해서 「식민지·조선」의 비참한 실상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종주국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의 비참함을 「조선내의 동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작집 《빛 속으로》의 발문에서 말하고 있다.<sup>9)</sup> 이를 근거로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溱)는 장혁주와 김사랑은 거의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0)</sup>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와무라 미나토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실상을 묘사하는 것이 반드시 일본어라야만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어렵거나 그 실상을 조선에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많을 경우에 가와무라 미나토의 논리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총독부의 통계대로라면 1943년 당시 일본어(국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15%에 이르는 것<sup>11)</sup>으로 나타나 있지만,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일본어를 해독하는 조선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사랑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 일본 문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일본에서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출판하는 데 있어 일본 문단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 문단은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식민지 문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식민지 작가들의 문학 활동 역시 국어(일본어)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었다. 1940년대 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폐간과 『문장』지의 폐간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

9) 가와무라 미나토, 앞의 글, 152쪽에서 재인용.

10) 가와무라 미나토, 앞의 글, 152쪽.

11) 近藤 劬一,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治政』, 朝鮮史資料編纂會, 1961. 199~200쪽.  
여기서는 황호덕, 앞의 글, 169쪽에서 재인용.

다. 김사량은 ‘국어(일본어)’로 창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즉 현재의 모든 희생을 지불하여, 자신의 언어와 대화해야 하는 넓은 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쳐두고 일부러 내지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어떤 통절한 심리적 동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화나 생활이나 감정을 보다 넓은 내지의 독자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동기, 혹은 별도의 의미로 말하자면, 나아가 조선문화를 내지나 동양이나 세계로 넓혀가기 위해, 미력이나마 그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자 하는 동기 등도 그것일 터이다. 또한 그것을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sup>12)</sup>

여기서 김사량은 일부러 국어(일본어)로 쓰는 사람과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김사량 자신은 후자에 속할 것인데 ‘조선의 문화나 생활이나 감정’을 내지의 독자에게 호소하고 나아가 동양이나 세계로 조선 문화를 넓혀나가는 데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자 하는 것 등이 일본어로 창작하는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사량은 일본어에 대한 위화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며 나아가 일본어로 쓰다가는 일본적인 감각이나 감정으로 휩쓸릴 듯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sup>13)</sup> 김사량의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의 패전 직전 조선어로 회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김사량 역시 국어(일본어)를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지만 그는 장혁주와 유사한 논리 즉, 국어(일본어)를 통해 조선적인 모습이나 상황을 일본과 세

12) 『金史良全集』 IV, 河出書房出版社, 1973. 29쪽. 여기서는 정백수, 앞의 책, 324쪽에서 재인용.

13) 정백수, 앞의 책, 334쪽 참조.

계에 알리는 수단으로 국어(일본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에는 국어(일본어)가 조선어에 비해 우수한 언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조선어는 그 범위가 좁은 한 지역의 제한된 언어일 뿐이지만 국어(일본어)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양의 대표적인 언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키나와, 대만, 조선 등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그 언어들이 일본어에 비해 열등한 지위의 방언으로 격하되는 식민지적 근대의 언어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4)</sup> 하야시 고지(林浩治)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어가 식민지 피지배국으로 뻗어나갈 때 조선어는 부끄러운 언어가 된다. 일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작가들은 일본어 창작을 통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에 빠져든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량은 ‘조선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사량이 일본어와 조선어의 혼종인 ‘내선어(內鮮語)’까지 고민했던 것<sup>16)</sup>은 이 같은 사정을 잘 말해 준다. 더욱이 그가 식민지 말기 조선어로 회귀한 것은 그 고민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실질적인 제1

14) 사실 이 과정은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재 식민지 시기 이중 언어 상황과 그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식민지 시기의 이중 언어 상황을 본격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재일 한인 작가들의 이중 언어 상황이 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이중 언어 논리와 재일 한인 작가들의 그것을 비교·대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장혁주와 김사량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15) 하야시 고지(林浩治), 「張赫宙論—五年戰爭下の朝鮮人作家の軌跡」, 『三千里』 36, 1983. 11. 209쪽.

16) 이에 대해서는 황호덕, 앞의 논문 참조.

세대 작가라 할 수 있는 김달수, 이은직 등의 경우에도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달수의 경우, 이은직, 김성민, 장두식 등과 함께 동경에서 『계림(鷄林)』이라는 회람잡지를 만들어 동인활동<sup>17)</sup>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는 당연하게도 국어(일본어)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조선과 조선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은 ‘계림(鷄林)’이라는 회람잡지의 명칭에서부터 암시되어 있다. 김달수 등은 태평양 전쟁의 한 가운데서 동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내는 동인지의 이름은 조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문학의 지향점 역시 ‘조선’적인 것이었고 이 경우 ‘조선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들이 조선어를 김사랑만큼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달수가 해방 이후 일본어로 창작하는 데 뚜렷하고 일관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어(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의 갈등과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작가 1세대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는 이들에게도 ‘조선어’는 언어적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모어와 모국어, 갈등과 긴장의 논리

#### 1. 민족의 회복과 ‘국어(조선어)’의 논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패전하고 나면 상황은 기막히게 반전된다. 국어의 위치를 빼앗겼던 조선어(한국어)가 국가(민족)의 회복과

17) 金達壽, 「八・一五 まで-金聖珉との思い出を中心に」, 『わか文學』, 筑摩書房, 1976. 102~105쪽. 물론 『계림(鷄林)』은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동인들이 합평회를 하기 위한 자료로 잡지를 만들었고 각 동인의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가면서 모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게다가 김달수는 이 잡지가 몇호까지 나왔는지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3~4호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함께 국어의 위치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어(한국어)는 국가 및 민족과 연결되어 해방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일 한인의 자의식을 자극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국어란 민족의 언어이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상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날 우리는 일본의 植民地政策에 의하여 이 뛰어난 民族의 言語와 文化를 약탈당하고, 그 대신 日本語와 日本文化를 強制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祖國이 光復됨에 따라 우리는 잃었던 강토와 빼앗겼던 우리말과 글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두운 過去를 되풀이 아니 하겠다고 우리들은 결심했습니다. 母國語로 말 못하던 병어의 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되새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끼리는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sup>18)</sup>

말은,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함에서 생겨난 정신문화의 산물이다. 곧 말은, 하나의 공동단체 속에서 생겨나고 또 그 공동생활의 역사적 과정에서 자라난 것이므로 말을 최소의 단위로 하여 사람의 공동단체를 가른다면 이 단위가 곧 「민족」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제 말을 가지지 않은 민족은 없으며 또 그 소유자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도 이 「말」이다. 불행하게도 하나의 말이 다른 말에 동화되어 소멸되는 일이 있을 때는 곧 그 때부터 그 민족의 다른 민족에의 동화와 멸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은 세계 여러 민족의 흥망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의 역사는 곧 그 민족의 역사인 것이다.<sup>19)</sup>

위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어에 빼앗겼던 국어의 위치를 회복했다는 인식은 또 다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어진다. 그리고 언어란 곧 민족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언어가 없으면 민족도

18) 南尙哲, 「國語使用을 日常化하자」, 『漢陽』 80, 1968. 10. 55~56쪽.

19) 張曉, 「言語와 民族-在日僑胞의 言語生活에 대한 斷想-」, 『漢陽』 33, 1964. 11. 92쪽.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프랑스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의 말을 말할 줄도 쓸 줄도 모르느냐’라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회자되고, ‘인도를 奴隸化한 것은 우리들 英語를 말하는 인도인이다’라는 간디의 경구<sup>20)</sup>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한국어를 발견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비장한 감동의 구조로 등장하기도 한다.

나는 한국말을 공부해도 써먹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래도 한국말을 한줄 해득하는데 많은 이 貴重한 時間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을 눈 앞에 두고 한국말의 一步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활용할 희망이란 없을 것임에도.

그러나 나는 여기에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숨결이다. 그것은 가장 민족적인 것, 말하자면 민족적인 血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활용하는가 안하는가가 큰 問題가 아니다. 重要한 것은 거기에서 나의 마음이 그 民族的인 것을 吸收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나는 비로소 자기의 祖上을, 祖國을 깊이 이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나머지 生을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다. 나는 「金子珍宇」로서가 아니라 李珍宇로서 죽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sup>21)</sup>

그가 「金子珍宇」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의식없이 살아왔다는 사실, 공부 잘 했음에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지게 일해 온 열여덟 살 청년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족적 억압과 차별 때문에 살인자라는 끔찍한 죄목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 일본 사회에서 많은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사형집행을 앞두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에 모두 가려버린다. 한 번도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르는 한국어를, 그것도 죽음을 앞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발견한 어린

20) 南尙哲, 「民族意識과 言語生活」, 『漢陽』 82, 1968. 12. 68쪽.

21) 『漢陽』의 편집인인 김인재(金仁在)는 살인혐의로 사형된 이진우(李珍宇)가 사형집행을 앞두고 남긴 글을 위와 같이 전하고 있다. 金仁在, 「그가 남긴 마지막 글월」, 『漢陽』, 1963. 5. 68쪽.

사형수의 모습은, 회복된 ‘국어’가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sup>22)</sup>

그러나 재일 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는 사실 한국어가 아니다. 일본이라는 공간은 그 의미가 변하긴 했어도 여전히 식민지 지배국이며 일본어가 억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재일 한인 작가들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래서 그들은 골목 안에서 낭랑하게 들리는 우리말 읽는 소리에 한 없이 섰기도 하고<sup>23)</sup> ‘녹슨 남의 언어를 부조화스리 갈’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인은 스스로 초대받지 못한 세기의 사생아<sup>24)</sup>처럼 느끼기도 한다.

22) 한편 198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일 한인이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며 영어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이 사건을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상실’로 파악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모토 마유미(山本眞弓), 『在日朝鮮人と言語問題』, 『三千里』 44, 1985. 11. 159쪽. 그러나 이 역시 재일 한인의 언어적 갈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한 일본어 재판을 거부했다는 것은 아이덴티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어를 거부하면서도 한국어를 요구할 수 없었고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역시 한국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언어적 자의식의 노출이라 볼 수 있을 법하다.

23) “남의 땅에서/낯선 생활에 부대껴/모없는 돌맹이처럼/슬픔은 속으로만 굳어져 가는데//어느 호젓한 거리/골목 안에서 흘러나오는/우리말 소리/우리말로 낭랑히 글 읽는 소리//오랫동안 서있고 싶구나/아이들처럼 골목안 자갈을/발끝으로 마음껏 차면서/해지도록 그냥 듣고만 싶다//거기에서 자라도/제것을 지키기가 힘든데//눈에 서투른 남의 글자들이/앞과 뒤를 첩첩이 막아서고/귀에 서투른 남의 노래가/회오리바람처럼 거리를 휘쓰는데//여기/이국의 하늘아래서도/끝없이 치솟는 분수와도 같이/목청껏 뽐어 올리는구나/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것을……//웃기를 여며도/가을은 사정없이 스며드는데/아픈 추억이 뭉부림치도록/아이들의 목청은/맑아만 가라!” 金潤, <굴소리>, 『漢陽』 97, 1970. 10 · 11. 119쪽.

24) “午後の 늙은 太陽이 빨간 落花를 빗겨 품을 즙음/걸레 깃발을 나부끼고 돌아가는 녀망바구니/녹슨 남의 言語를 不調和스리 갈기며/어느 다리 밑으로 가난한 영혼을 끌고 간다//명든 가슴들의 피를 짜 지은/東京의 어느 紙幣 골짜기이며/오오사까 市街地 辺두리의 쓰레기통이며/씩은 내음새도 좋다/그러한 곳에서 녀망장수는/쫓잡난 별을 주어담아 꿈을 만든다/人道主義의 同情은 驅逐질이 나오도록/쓰레기통보다 속이 더러워//濁流의 歴史를 등뼈 속에 지고/시궁창 같은 東

이 때문에 재일 한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sup>25)</sup>. 2~3세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일본인이 아니며 한국인도 아닌 ‘재일 한국인(조선인)’이다. 또한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 본국에서 일본어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조리한 존재이기도 하다. 한국인(조선인)이면서 한국어(조선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재일의 논리<sup>26)</sup>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언어는 늘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들의 경우 언어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살펴보기로 하자.

## 2. 모어/모국어의 긴장과 재일 한인 문학의 언어적 특징

『由熙』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던 이양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 내지 의무감은 현실과 실체에 있어서의 저 자신의 모습에 의해 배반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모어, 즉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듣고 배운 언어라는 것은 마치 폭력적이라고도 할

---

洋의 「모탈」속에서/열푸른 입술을 추기고는 다시 외치는/招待받지 못한 世紀의 私生児/어느 핏줄을 같이한 記憶이 있어/노을이 저만큼 붉어 가면/內面으로 通하는 歸路에/하많은 손짓이 아우성친다.//목덜미에 피뢰죄한 땀물이며/얼굴에는 발고랑 같은 주름길이/教科書의 歷史보다 眞実이 말하여도/안타까운 身世의 血脈이 通한 아들은/아버지의 조각난 마음을 읽을 줄 몰라/非遺傳의인 母國語는 試驗管 속에서/희멸경계 變容하여 沈澱하기만 하니/넝마장수의 來歷을 모르는 民族의 아들/여기에 또 한 実存이 別살을 등지고/否定的 검은 「드라마」를 準備해야 하나//期待는 惡夢/그래도 말이지/깃발처럼 넝마야 휘날려라/政治도 民族도 人道도/詛呪도 諦念도 一切을 孕胎한 채/내일로 넘어가는 노을이 또 저만큼 붉어 온다.” 金声浩, <푸념>, 『漢陽』 33, 1964. 11. 159쪽.

25) 姜在彦, 「『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 『三千里』 50, 1987. 夏, 43~45쪽.

26) 이에 대해서는 줄고, 「재일한인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참조.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며 존재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이지만 모국어 와서 특히 모국어의 바다와 같은 국문과에 들어가서 실감한 것입니다.

명분상 또는 관념상으로 한국어는 모국어이며, 저의 아이덴티티의 중심에 위치해야만 하는 언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국어인 한국어는 어디까지나 외국어이며 이국의 언어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sup>27)</sup>

이양지는 외국어 같은 모국어가 아이덴티티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이국의 언어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고민하고 있다. 자신이 한국인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자신의 언어 역시 한국어여야 한다는 관념은 당위적인 명제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살아온 만큼 한국어는 외국어처럼 느껴질 뿐이다. 한국에서 국문과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일본어는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며 존재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자각한다. 여기서의 고통과 자의식이 이양지 작품의 중요한 근원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sup>28)</sup>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양지가 모어와 모국어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양지에게 모어는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배운 언어 곧 일본어이다. 그런데 모어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모어의 엄청난 위력을 모국어의 바다 즉 한국어를 접하면서 느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명하게 느꼈던 모어=모국어의 등식을 이양지는 심각하게 회의하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엄밀히 말해 모어와 모국어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현실에서 이것이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27) 이양지, 「한 재일동포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 :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 『한국논단』, 1990. 12. 226쪽. 이 글은 그녀의 유작인 『돌의 소리』, 삼신각, 1992. 에도 실려 있다.

28) 이양지는 『由熙』, 『刻』 등의 작품에서 이 문제를 첨예하게 그리고 있다.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제일 한인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면 제일조선인은 자기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본어를 외국어로 취급하는 한편, 조선어를 「母國語」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母國語」라는 일본어는, 영어 mother tongue의 잘못된 번역어이고, mother tongue의 개념을 바르게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mother tongue의 개념을 바르게 전해주는 일본어는 母語이다. 그리고 외국어에 맞서는 개념은 자국어이고, 母語는 非母語라는 개념과 함께 성립한다. 왜냐하면 mother tongue이란, 말과 그것을 말하는 개인과의 관계에 주목한 개념이고 여기에는 행정기구인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말과 거기에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에는 official language, national language, state language, regional language 등이 있다(예를 들면, 우루두어(ウルドゥ어)는 파키스탄의 official language이고 스리랑카의 national language는 싱할라어(シンハラ어)와 타미르어(タミル어)이지만 official language는 싱할라어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처럼 영어에는 국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과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등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 것에 비해 「母國語」라는 일본어는 이 둘을 혼동한 결과 발생한 개념적으로 지극히 부정확한 말인 것이다.<sup>29)</sup>

모어란 어머니의 말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익혔던 언어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모국어는 국가가 개입된 근대적 개념이다. 그런데 야마모토 마유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경우 모어와 모국어는 구분되지 않는다. 어찌면 이 두 개념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나 자라면서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가 곧 모어이며 모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모어와 모국어는 같동하지 않는다.

29) 야마모토 마유미, 앞의 글, 154쪽.

뿐만 아니다. 식민지 지배국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피식민 지역 작가들의 경우에도 식민지 지배국의 언어와 모국어의 갈등이 재일 한인에게서처럼 첨예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기자인 히라이시 쇼우고(白石省吾)는 필리핀 작가에게 영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질문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sup>30)</sup>

그렇지만 재일 한인의 문학은 다르다. 그들의 문학은 끊임없이 모어와 모국어와 의식하고 있으며 이 양자가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만들어낸다.<sup>31)</sup>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재일 한인의 문학이 일본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물론 한국어로 창작되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 창작은 재일 한인 문학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일 한인 문학이라 하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계열의 ‘재일조선인문학예술동맹(在日朝鮮人文學藝術同盟)’은 기본적으로 ‘국어(한국어, 조선어)’로 창작해 오고 있지만 그들의 문학 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문화운동의 일환이고 따라서 그들의 문학은 명백히 ‘조선문학’의 범주에 속한다<sup>32)</sup>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재일 한인 문학은 일본어로 창작된 작품에 집중

30) “이야기가 갑자기 비약하지만, 몇 년 전 필리핀의 영어 작가 쇼닐 호세(シオニール・ホセ)씨와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민족어가 아닌 영어로 쓰는 것에 위화감은 없는지, 라틴 아메리카 작가는 정복자 스페인어로 쓰는 것에 의해 새로운 문학적 실험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을 했다. 호세씨는 잠시 생각했지만 특별히 위화감은 없다고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내 머리 속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르케스라든가 료사라든가 보르헤스 등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히라이시 쇼우고(白石省吾), 「<在日文學>二十年の印象」, 『靑丘』 1, 1989. 秋, 85쪽.

31) 카타카나로 한국어를 표현하는 방법 등은 그 가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가와무라 미나토, 「在日朝鮮人文學とは何か」, 『靑丘』 19, 1994. 春, 29쪽.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국어 작품은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며 문제성을 띤 작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일 한인 문학의 핵심은 일본어 문학에 있게 되고 ‘언어’가 그들 문학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① 물론 작가의 문학정신, 작품, 주제의 근거하는 방식은 각각 개성적이어서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그 특징을 집약해서 말하면 대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타자의 언어, 그것도 침략자의 언어인 일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면서도 조선적인 것을 농밀하게 묘사하는 것. 조국에의 견고한 민족적 회구에 의거하고 있는 것-여기에 제일조선인일본어문학의 핵심이 있고 고유의 리얼리티를 지닌 문학세계 창조가 있다.<sup>33)</sup>

② 제일조선인문학의 2세대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에 적대적인 일본어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굳이 일본어를 창작 용어로 선택한 세대이다. 물론 거기에는 제1세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선어 능력의 감퇴라는 요소도 있을 것이지만 설령 조선어에 의한 창작능력이 있다고 해도 주체적으로 ‘일본어로 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대적으로는 오히려 제1세대에 가까운, 정승박이나 고사명, 김석범이나 김시중 등이 그렇고 그들에 이어서 이회성, 김태생, 김학영 등과 최화국, 러라(麗羅), 안우식, 윤학준 등의 시인, 엔터테인먼트 작가, 문예평론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이들 문학자들이 「제일조선인문학」을 짊어지고 있고, <제일조선인이> <일본어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고뇌와 저항을>그리는 문학으로서 더욱더 제일조선인문학다운 문학이라고 평할 수 있다.<sup>34)</sup>

③ 간략하게 말하면, 일제시대의 체험이나 해방 후 조국과 <제일>의 상황을 제재로 해서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와의 긴장관계에서 발생한

33) 이소가이지로(磯貝治良), 『新世代在日朝鮮人文學』, 『三千里』 50, 1987. 5. 108쪽.

34) 가와무라 미나토, 『在日朝鮮人文學とは何か』, 『靑丘』 19, 1994. 春, 28~29쪽.

문체를 가지고 민족의 냄새(냄새：におい)를 그 작품에 짙게 표출시키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35)</sup>

위의 논의들은 재일 한인 작가들이 식민지 지배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문학 언어로 선택했으며, 그 결과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갈등과 긴장 등이 재일 한인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두 언어의 갈등과 긴장이야말로 재일 한인 작가들의 독특한 문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김달수, 고사명, 오임준, 김석범, 김시종, 김태생, 김학영, 양석일, 이양지 등 주요한 작가들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창작하면서도 끝없이 '민족'을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 국어(조선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결국 재일 한인들의 일본어 문학은 식민지 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어와 한국어(조선어)의 갈등과 긴장으로 매우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V. 이중 언어의 긴장된 투쟁관계,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가와무라 미나토는 또 다른 자리에서 재일 한인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재일조선인문학」의 성립은 전후 일본의 조선인(한국인) 민족단체인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한국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라는 조직과 그 문화정책이나 방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조선총련은 그 하부조직으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을 두고 기본적으로는 「국어(조선어)」에 의한 문학 창작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그들의 문

35) 이소가이치로(磯貝治良), 「第一世代の文學略圖」, 『靑丘』 19, 1994. 春, 36쪽.

학활동은 북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조선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일본어에 의한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전후 「재일조선인문학」의 실질을 만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문학자들, 말하자면 김달수, 이희성, 김석범, 김태생, 고사명, 김시중 등의 문학자가 이런 재일조선인 민족조직으로부터의 탈퇴자, 제명자라는 것은 「재일조선인문학」이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중략- 「재일조선인문학」은 일본 내의 조선인 민족조직인 조총련 등의 조직에서 이탈한 문학자들이 「식민지(적) 문학에도 「민족문학(조선문학)」에도 귀속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온 말하자면 “망명정권적” 문학이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처럼 특정한 시대성이 각인된 특수한 테마성에 의해 한정된 것이다.<sup>36)</sup>

가와무라 미나토의 이 발언은 쓰여진 언어에 의해 문학의 국적을 구분하려는 ‘근대’적 태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재일 한인 문학은 망명정권적 문학이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처럼 일본 문학의 한 특수한 역사적 형태인 것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글은 가와무라 미나토의 이와 같은 입장을 비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일본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 등의 조직에서 이탈한 작가들이 재일 한인 문학을 만들어 왔다는 그의 지적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재일 한인 문학은 가와무라 미나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큰 영향을 받아 있다. 그리고 일부를 제외하면 1, 2 세대 대부분의 재일 한인 작가들이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 조직의 열세를 면치 못했던 민단 계열의 작가와 작품은 재일 한인 문학에서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

36) 가와무라 미나토, 『植地文學から在日文學へ-在日朝鮮人』文學論序說(1), 『靑丘』 22, 1995. 夏, 154~155쪽.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직에서 밀려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의 핵심에 ‘언어’가 놓여 있다.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조총련이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은 원칙적으로 ‘국어’(한국어, 조선어)를 창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등에서는 지금도 『겨레문학』, 『종소리』 등의 한국어 문예지와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재일 한인 문학의 본령은 일본어 창작에 놓여 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등의 한국어 창작은 그 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일본어 작품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련 등의 조직은 끊임없이 작가들을 압박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작가들이 제명 또는 탈퇴의 형식으로 조직을 등지게 된다.<sup>37)</sup> 그렇다고 이들 작가의 이념적 지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념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일본어를 창작 활동의 매개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그들은 조직이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인 ‘국어(조선어,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선택하는 것인가? 더욱이 그들은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조선적인 것, 민족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어로 어떻게 민족적인 형식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그래서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질문일 수 있다. ‘재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행위<sup>38)</sup>라면 더욱 그렇다.

37) 예외적인 인물로 이은직을 들 수 있다. 조직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가 조직을 그만두는 대신 문필활동을 접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직에서 물러난 1990년대 이후에 다시 문필활동을 재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藝』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06. 4. 각주 59) 참조.

38) 이에 대해서는 즐고, 「재일한인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논총』 34, 한국문학회, 2003. 참조.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실 해방 직후 재일 한인 문단이 형성되던 시기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朝鮮文藝』 1948년 4월호에서, 조선어 문학의 회  
복이야말로 당시 문학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어  
당(魚塘)의 논리와, 과거의 노예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일본어가  
그 수단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김달수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  
이다.<sup>39)</sup>

그런데 이는 한 번의 충돌이나 논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매개로 한 창작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창작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  
시할 수 있어야만 재일 한인 문학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달수는 ‘이 식민지 정책을 역이용해서 우리들은 일본어를  
공격의 무기로 바꾸어 일본인 독자에게 우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  
’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sup>40)</sup> 그리고 허남기는 『火繩銃のうた』의 후기  
(あとがき)에서 ‘식민지 백성, 망국민으로서의 괴로운 시련을 일본보다  
도 앞서 겪어 온 조선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조선이 일본제국주의  
의 독니에 걸려 조국의 독립을 완전히 상실해 온 과정을 일본이 독자 제  
군에게 알려야 할 필요, 그보다도 오히려 의무에 가까운 것을 느끼기 때  
문에 일본어로 창작한다고 밝히고 있다.<sup>41)</sup>

이들은 결국 일본인을 가상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달수나 허남기의 논리는 사실 거의 같은 논리적 바  
탕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일본인 독자에게 식민지화 과정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바  
탕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런 논리와 행위는 일본어를 전략적으로 ‘전

39) 이에 대해서는 즐고,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 문제」, 『한국문  
학논총』 42, 2006. 4. 참조.

40) 김달수, 「植民地のなかからの作家」, 『わが文學』, 筑摩書房, 1976. 113쪽.

41) 이소가이 지로, 「<在日>文學の變容と繼承」, 『靑丘』 13, 1992. 秋, 57쪽.

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유'는 식민지 피지배국의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전략<sup>42)</sup> 중의 하나이다.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나타내거나 식민지화 과정의 불합리함을 일본인 독자에게 전하겠다는 것은 언어를 도구화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들의 사용하는 지배국의 언어인 일본어는 일본인 작가의 일본어와 달라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한국어와의 긴장으로 독특한 문장과 문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어를 매개로 창작하는 조총련 등의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해도 김달수와 허남기 등의 논리와 태도가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총련 등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한다. 조총련의 기관지 『朝鮮新報』는 『三千里』가 자신들의 조직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조직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반공화국적인 잡지라고 공격한다. 이에 대해 『三千里』는 통권 10호에서 좌담회(강재언, 김달수, 김석범, 이진희, 이철 등 참석)를 열어 이를 다시 반박하기도 한다.<sup>43)</sup> 그런데 『朝鮮新報』 1979년 8월 10일에는 일본어 작가들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 박종상(朴鐘相)이라는 인물이 「民族虛無主義者の所産」이라는 글을

42) "전유(appropriation)란 한 언어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담보>하는 과정을 의미하거나, 혹은 라자 라오의 지적처럼 <모국어가 아닌 타자의 언어로 모국어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상호이질적인 문화적 경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의 도구로 차용 및 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ill Ashcroft의 앞의 책, 66쪽. 사실 전유는 재일 한인 문학의 이 중 언어 논리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논문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 한 분이 이 개념을 좀더 부각해서 재일 한인 문학의 이 중 언어 논리를 해명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꼼꼼하게 읽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재일 한인 작가의 이 중 언어 상황에 대한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남겨 놓은 문제제적 자료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김석범, 이희성, 오임준, 고사명 등이 남겨 놓은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후속 작업으로 미루고자 한다.

43) 「<座談會>, 『朝鮮新報』의 批判に答える, 『三千里』 10, 1977. 5. 124~137. 그리고 이 좌담의 끝(137~140쪽)에 『朝鮮新報』의 『三千里』 비판 전문이 제시되어 있다.

통해 김달수의 <備忘錄>과 김석범의 <往生異聞> 두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박종상의 비판 요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두 개의 작품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인 조선총련을 비방, 중상, 공격하고 있는 점에서 반민족적이고 반동적이다. 김달수도 김석범도 총련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조직에 대해서 입을 댈 자격이 없음에도 조국의 평화통일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 분열을 획책하는 적과 한 몸이 되어 총련을 공격하고 있다. 둘째, 조선인 작가라면 당연히 조선어로 창작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에 억눌려 온 일본어로 써서 일본 잡지에 발표하여 개인의 매명(賣名)과 밥값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있다.<sup>44)</sup>

박종상의 비판은 김달수와 김석범이 조직을 배반한 사람이며 이들이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일본어 잡지에 발표함으로써 민족과 조직을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여기서의 비판 역시 김달수와 김석범이 일본어로 창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민족허무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만약 이들이 국어(조선어)로 창작했다면 이 같은 비판은 어찌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도 김달수, 김석범 등은 사실상 제일 한인 문단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박종상의 이 비판을 두고 하리유우 이치로(針生一郎)는, 제일 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김달수와 김석범을 옹호한다. 그 역시 일본어를 매개로 하여 일본의 독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김달수 등의 논리를 거의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sup>45)</sup>

그런데 일본어로 창작하는 작가가 김달수, 김석범 두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종상의 공격은 김달수와 김석범으로 대표되는 제일 한인 일본어 문단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리

44) 하리유우 이치로(針生一郎), 「その批判は正當か—金達壽, 金石範の近作をめぐる—」, 『三千里』 20, 1979. 11. 68쪽.

45) 하리유우 이치로(針生一郎), 앞의 글, 77쪽.

가 없을 듯하다.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라면 삼천리 편집진이 좌담회를 열면서까지 박종상의 비판논리를 조총련의 논리로 간주하고 반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좌담회에는 강재언, 김달수, 김석범, 이진희, 이철 등 당시의 『三千里』 편집위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진희는 일본어로 쓰는 것이 민족허무주의의 소산이며 사대주의라면, 공화국에서 보내오고 있는 『今日のチョソン』이라든가, 총련에서 발간하는 『朝鮮畫報』, 『朝鮮時報』, 『統一評論』, 『新しい世代』 등도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대주의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김달수는, 언어는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철 역시 일본이라는 입지 조건이 조선어만을 철칙으로 고집할 수 없게 한다며 필요와 요구에 따라 언어는 달리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sup>46)</sup>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리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제기되었던 김달수, 허남기 등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김석범은 박종상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三千里』 20호에 실고 있다. 「民族虛無主義の所産」<sup>47)</sup>이라는 글이 그것인데 여기서 김석범은 당시 조총련 의장이던 한덕수를 실명을 들어 비판한다. 박종상의 비판은 조총련이라는 조직의 의장인 한덕수의 노선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김석범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범은 박종상이 아닌 한덕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일본어 창작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김석범은 우선 일본어로 쓰는 것이 조선문학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자신은 ‘재일조선인문학을 조선문학’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재일’이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온 ‘재일조선인의 문학’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석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6) 「〈座談會〉, 總連・韓德銖議長に問う」, 『三千里』 20, 1979. 11. 95~97쪽.

나는 일본어로 쓰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재일이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쓴다. 재일조선인이 존재하는 한 재일조선인의 일본어 문학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존재의 소리고 문제는 -중 략- 예를 들면 김달수의 경우에도 「조선」을 일본인에게 알려려고 하는 자세가 일관되어 있다. 다만 문학에 있어서 언어에는 자기목적적 기능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결국 언어의 매카니즘이겠지만 특히 재일조선인 작가와 일본어와의 모순은 하나의 긴장된 투쟁의 관계이다.<sup>47)</sup>

위 인용에 따르면 김석범이 일본어로 쓰는 것은 ‘재일’이라는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조선문학」이 아닌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것이다. 김석범의 이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재일 한인(조선인) 문학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향<sup>48)</sup>을 보인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경계의 문학임을 선언하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일이라는 특수한 행위는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조선」에 소속된 것도 아니다. 김석범의 이 논리에 따르면 국가라는 특정한 공간에 소속되지 않은 경계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곧 ‘재일’이며, 그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이다.<sup>49)</sup> 더욱이 그는 ‘재일조선인 작가’

47) 김석범, 「〈民族虛無主義の所産〉について」, 『三千里』 20, 1979. 11. 87~88쪽.

48) 재일 한인 문학을 민족문학의 범주에 넣어 국문학으로 파악하려는 초기의 노력이나 일본어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문학이라는 노력은 사실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 문학이 반드시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근대 국민국가적 논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숙은 「디아스포라와 국문학」(『민족문학사연구』19, 민족문학사학회, 2001)에서, ‘재일문학’에서 ‘코쿠분가쿠(국문학)’에 간혀 있는 한국문학, 일본문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재일조선인문학일 뿐’이라는 김석범의 선언은 민족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박종상의 논리를 가볍게 뛰어 넘고 있다.

49) 2007년 ‘요산문학제’ 발제에서, 2000년도 이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현월(玄月)은 자신을 ‘벽에 박인 못에 옷깃이 걸려 천경에도 땅에도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존재’라고 비유한 바 있다. 일본과 한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재일 한인 작가의

와 '일본어'를 '긴장된 투쟁의 관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의 긴장이야말로 재일 한인 문학의 근본적 존재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이런 인식은 '일본어'를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김달수 등의 논리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것이다. 위 인용에서 제기하고 있는 언어의 자기목적적 기능이나 '재일조선인 작가'와 일본어의 관계를 긴장된 투쟁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재일 한인 작가라는 존재의 근본적 기반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김석범은 한 좌담회에서 자신은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일본어로 쓰는 것을 그만 두'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어로 쓰든, 조선어로 쓰든' 조선인인 것은 틀림없으며 '내부에 조선어를 지니고 있'다면 '일본어는 조선인의 일본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 조선어와 일본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도 김석범은 인식하고 있다.<sup>50)</sup> 이런 태도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언어가 지닌 보편적 측면을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언어란 개별적인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어로도 조선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석범은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조선인(한국인) 작가가 일본어로 쓰는 것은 모순이라는 인식도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아예 표현할 수 없는 내용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내용은 어휘적인 것일 수도 있고 통사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정서적인 것

---

'경계성'을 이같이 표현한 것이다. 현월은 부산일보 최학림 기자와의 대담에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것이다. 나는 내 존재가 벽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듯하다. 바닥에 닿지도 않고 천정에 닿지도 않은 채 공중에 붕 떠 있는 존재 말이다.", 「부산 온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 재일동포 현월 씨」, 『부산일보』, 2007년 1월 22일, 24면.

50) 金石範, 大江健三郎, 李辰成 대담, 「日本語で書くことについて」,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 163~165쪽.

일 수도 있다. 김석범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재일조선인 작가와 일본어’를 ‘긴장된 투쟁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재일 한인(조선인)이 존재하고 그 문학이 존재하는 이상, 그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재일 한인 문학의 위치 역시 이 관계 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 아닐까?<sup>51)</sup> 그렇다면 재일 한인 문학의 토대는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의 긴장과 갈등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재일 한인 문학은 존재의 이유를 획득하게 된다. 나아가 재일 한인 문학이 독특한 창조성을 보일 수 있는 이유 역시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말더듬이로 존재하는 김학영의 문학이나 가야금과 판소리에 빠져들며 어감의 차이까지 고민했던 이양지, 일본어에도 한국어에도 항상 위화감을 느끼지만 그 위화감이야말로 소설을 쓰는 동기와 무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유미리<sup>52)</sup>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어와의 ‘긴장된 투쟁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V. 마무리

재일 한인 작가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국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일본어에는 식민과 피식민, 국가와 민족, 표준어와 지방어 등 식민지 근대의 다양한 국면들이 혼종

51) 사실 김석범의 이중 언어 논리는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 『民族, ことば, 文學』, 創樹社, 1976,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1981. 등 여러 문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김석범은 재일과 일본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이런 논리를 정밀하게 따지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김석범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져보기 위해서는 고사명, 오임준, 이회성 등 다른 작가들의 논리와 견주어보아야 하는 등 더욱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김석범의 일본어 창작 논리는 다음 기회에 따져 보고자 한다.

52) 柳美里, 『不自由な言語』, 『窓のある書店から』, 角川春樹事務所, 1996.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학은 여타의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재일 한인 문학이 최근 탈식민주의라는 흐름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재일 한인 작가들의 일본어에는 한국어(조선어)가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김사량, 장혁주 등은 일본어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양의 표준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물론 식민지 시기 일본의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기도 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당시의 일본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언어이기도 했지만,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김사량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적 위화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칫하면 일본어의 논리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국어의 위치를 한국어(조선어)가 차지하면서 언어적 상황은 달라진다. 국어 또는 표준어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던 일본어가, 해방과 함께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한국어(조선어)가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일본어는 침략자의 언어, 나아가 과거의 왜곡된 식민의 역사를 지탱시켜 준 제국주의의 언어로 격하되고 조선어는 순수성을 회복한 민족의 언어로 부각된다.

그렇지만 재일 한인 작가들에게 한국어(조선어)는 여전히 문학의 언어로 자리잡지 못한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어(조선어)가 추상적 사고의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마치 외국어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일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국어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일본어 번역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었다. 이 때문에 김석범 등 제1세대 일부 작가 및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등에서는 한국어(조선어) 창작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문학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그 실적이 일본어 문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의 한국어(조선어) 문학은 북한의 해외 공민문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을 뿐 아니라 문학적 성과 역시 일본어 문학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일 한인 문학은 일본어 문학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 경우 순수성을 회복한 민족의 언어인 국어(한국어, 조선어)와의 긴장은 불가피하게 된다. 더욱이 모어와 모국어의 분리라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재일 한인 작가들의 언어적 고민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방 직후부터 일본어 창작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본어 창작에 대한 비판은 일본어 창작의 논리를 확립해야 하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일본어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식민지화 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일본의 독자에게 알리겠다는 탈식민주의적 전유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김석범의 예에서 보듯 재일 한인(조선인) 작가와 일본어의 관계를 긴장된 투쟁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를 그 문학의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경우 재일 한인 문학은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의 긴장 및 투쟁 관계가 그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재일 한인 문학은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의 틈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한국어(조선어)는 그들의 일본어에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재일 한인 문학의 가장 큰 특징과 독특한 창조성이 나타나는 자리 역시 이 언어적 관계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있다.

물론 재일 한인 문학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재일 3~4 세대가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1~2 세대의 문학과 변별되는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미리 등의

작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어의 긴장과 투쟁관계는 여전히 재일 한인 문학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임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 한인 작가들이 일본어로 창작을 지속하는 한 한국어(조선어)는 그들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재일 한인 문학, 이중 언어, 전유,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모어  
모국어

## 참고문헌

### 1. 자료

『漢陽』, 『三千里』, 『靑丘』

### 2. 논문 및 저서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3.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 연구』, 월인, 2000.

이양지, 「한 재일동포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 :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 『한국논단』, 1990. 12. 214~231쪽.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19, 민족문학사학회, 2001. 55~70쪽.

이재봉, 「재일한인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논총』32, 한국문학회, 2002. 361~393쪽.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藝』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42, 한국문학회, 2006. 4. 359~389쪽.

이현홍, 「『漢陽』所在 在日韓人文學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이현홍, 「재일 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42, 2006. 319~357쪽.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0.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42,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황호덕, 「동아시아 근대 어문 질서의 형성과 재편 ; 국어(國語)와 조선어(朝鮮語) 사이, 내선어(內鮮語)의 존재론-일제말의 언어정치학」,

- 현영섭과 김사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7. 135~182쪽
- 姜在彦, 「「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 『三千里』50, 1987. 夏, 43~51쪽.
- 고모리 요이치, 정선태 역, 『일본어의 근대-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소명출판, 2003.
- 高史明, 『彼方に光を求めて』, 筑摩書房, 1973.
- 近藤劬一, 『太平洋戦下終末期朝鮮治政』, 朝鮮史資料編纂會, 1961.
- 金達壽, 「八·一五 まで-金聖珉との思い出を中心に, 『わが文學』, 筑摩書房, 1976. 102~108쪽.
- 金達壽, 「植民地のなかからの作家, 『わが文學』, 筑摩書房, 1976. 109~115쪽.
- 金石範, 大江健三郎, 李恢成 대담, 「日本語で書くことについて,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 116~168쪽.
- 金石範, 「「民族虛無主義の所産」について, 『三千里』20, 1979. 11. 78~89쪽.
- 金石範, 『民族 ことば, 文學』, 創樹社, 1976.
- 金石範,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1981.
- 金石範, 『ことばの呪縛-在日朝鮮人文學と日本語』, 筑摩書房, 1972.
- 磯貝治良, 「「在日」文學の變容と繼承, 『青丘』13, 1992. 秋, 56~63쪽.
- 磯貝治良, 「新世代の在日朝鮮人文學, 『三千里』50. 1987. 5. 108~115쪽.
- 磯貝治良, 「第一世代の文學略圖, 『青丘』19, 1994. 春, 34~41쪽.
- 磯貝治良, 『<在日>文學論』, 新幹社, 2004.
- 白石省吾, 「「在日文學」二十年の印象, 『青丘』1, 1989. 秋, 80~85쪽.
- 山本眞弓, 「在日朝鮮人と言語問題, 『三千里』44, 1985. 11. 154~163쪽.
- 吳林俊, 『日本語と朝鮮人』, 新興書房, 1971.
- 柳美里, 「不自由な言語, 『窓のある書店から』, 角川春樹事務所, 1996.

-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역,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 林浩治, 「張赫宙論—一五年戰爭下の朝鮮人作家の軌跡」, 『三千里』36, 1983. 11. 209~225쪽.
- 林浩治, 『在日朝鮮人 日本語 文學論』, 新幹社, 1991.
- 林浩治, 『戰後非日文學論』, 新幹社, 1997.
- 竹田青嗣, 『<在日>根據』, 國文社, 1983.
- 川村 溱, 「植民地文學から在日文學へ—在日朝鮮人文學論序說(1)」, 『青丘』22, 1995, 夏, 151~159쪽.
- 川村 溱, 「在日朝鮮人文學とは何か」, 『青丘』19, 1994. 春, 26~33쪽.
- 川村 溱,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學論』, 平凡社, 1999.
- 針生一郎, 「その批判は正當か—金達壽, 金石範の近作をめぐって」, 『三千里』20, 1979. 11. 68~77쪽.
- Bill Ashcroft·Gareth Griffiths·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부산 온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 제일동포 현월 씨」, 『부산일보』, 2007년 1월 22일, 24면.

<Abstract>

Niche betwee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Japanese language, the place of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 On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 dual language of  
『*Hanyang*』, 『*Samcheonri*』, 『*Cheonggoo*』

Lee, Jae-Bong

The Japanese language of Korean-Japanese writers are constantly interfered with the Korean language(Choseon langu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Kim Saryang and Jang Hyuckjoo could work in the literary world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that Japanese is the standard language in Asia. However, it greatly aroused a sense of linguistic incongruity to express something Korean in Japanese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scribe exactly something Korean in Japanese and it is easy to be affected by Japanese logic.

Japanese, which was firmly placed as the national language or the standard langu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replaced by the Korean language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Japanese was degraded as the invader's language or the imperialist's language that supported the distorted colonial history of the past and the Choseon language enhanced its status as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Korean-Japanese writers still wrote their works in Japanese. Because the Korean language did not form the base of abstractive thought and it was recognized as if it was a foreign language, they

could not help choosing Japanese. In reality, most of them were educated in Japanese, which was considered as the national language. And thus, even though they could use the Korean language, most of them needed the procedure of translation into Japanese.

The mainstream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was written in Japanese, and in this case, the literature written in Japanese inevitably created the tension with the Korean language (the Choseon language) as the national language that recovered its purity. Moreover, Korean-Japanese writers's linguistic agony could not help deepening because of the special situation that the mother tongue and the national language were separated. It may be the reason why the creation in Japanese has been endlessly disputed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Also the constant criticism on the writings in Japanese has acted as the pressure that the logic for the creation in Japanese should be established. Decolonial appropriation, which intended to inform the Japanese reader of the expression of something Choseon in the Japanese language or the unreasonableness in the course of colonialization, appeared in this process. As we can see in the example of Kim Seokbum, so is the attitude tha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Japanese writers and the Japanese language as the strained conflicting relation and recognizes it as the important literary quality.

In this case, the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Korean language (the Choseon language) and the Japanese language become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That is,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exists betwee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Japanese language and the Korean (Choseon)

language creates constantly the tension in their Japanese. This linguistic relation is also the major point where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and peculiar creativity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appear.

Key Words : Korean-Japanese literature, Dual languages,  
appropriation, the Korean (Choseon) language,  
the Japanese language,  
mother tongue, national language